

2024년 1-1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1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한국은행 (2023년 12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금리 동결 기조 유지

- 미국은 11월 실물지표들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에서 동결하고, 2024년에는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
- 일본은 10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일본은행(BOJ)은 물가 상승에도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유로존 역시 10월 실물지표들의 약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이 현 금리 수준을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에는 미온적
- 중국은 11월 실물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인 가운데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투입과 대출 지원 확대를 공표하면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 및 유지
- 달러화는 12월중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연초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美 국채금리 상승 전환 등으로 강세
- 유가는 지난해 12월중 홍해發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올 들어도 사우디 아람코社의 원유 가격 인하 등으로 높은 변동성이 지속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 증가·투자 감소세

-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전월비 3.3%)를 보이고,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증가 전환(0.5%)
 - 소매판매는 내구재(2.6%)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월비 1.0%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1.5%)와 운송장비(-5.7%)가 감소하면서 2.6% 감소

□ 금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 및 가계대출 둔화, 1월 초(1월 2일 ~ 10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 전환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동반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감소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12월중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올 들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고, 연초에는 중국 위안화 약세, 북한의 해상 사격, 국내 증시 부진 등 영향으로 상승 전환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5.3%, 서비스업생산 +1.9%

- 제조업생산은 기계장비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와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5.3%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제조업ICT와 중공업은 생산 증가세가 확대, 경공업은 생산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1.9% 증가

□ 고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수출입 : 12월 수출 +5.1%, 수입 -10.8%, 무역수지 45억 달러 흑자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77억 달러, 수입이 10.8% 감소한 532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주요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인도·아세안·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지난 2023년 4분기중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1. 해외경제

□ 미국 : 11월 실물지표 소폭 증가, 연준 2024년 3차례 금리인하 예상

○ 11월 생산과 소비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약세와 선행지수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물경기 약세를 시사.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5.25~5.5%)를 동결(3연속)하면서도 2024년중 3차례 금리인하를 예상

- 산업생산이 유틸리티(전월비 -0.4%) 부문의 감소에도 광업(0.3%)과 제조업(0.3%)의 동반 증가세로 전월과 달리 증가(0.2%)하고, 소매판매도 식당·주류(1.6%)와 자동차·부품(0.5%) 등의 판매 증가로 소폭 증가 전환(0.3%)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수주·재고 증가 및 생산·고용 감소 등으로 전월 수준(46.7)에서 보합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38.2) 보합에도 미래 기대지수(77.8) 상승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상승
-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약간 확대(10월 15만 개 → 11월 19만 개)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하락
-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으로 동결하고, 2024년 말 금리를 4.5~4.75%로 전망하면서 3차례 금리인하 예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8	1.9	2.2 (1.7)	2.1 (2.4)	4.9 (2.9)				
산업생산 (IT생산)	4.4 (9.7)	3.4 (2.4)	-0.1 (-0.9)	0.2 (6.2)	0.5 (5.0)	0.0 (1.2)	0.1 (1.2)	-0.9 (1.7)	0.2 (1.7)
내구재수주	18.4	8.3	-0.1	5.4	-1.1	-0.1	4.0	-5.1	5.4
소매판매	18.2	9.7	1.1	0.1	1.7	0.7	0.8	-0.2	0.3
소비자물가	4.7	8.0	0.9	0.7	0.9	0.6	0.4	0.0	0.1
실업률(%)	5.4	3.6	3.5	3.6	3.7	3.8	3.8	3.9	3.7
무역수지(10억US\$)	-841.6	-951.2	-201.8	-203.8	-184.7	-58.6	-61.2	-64.5	-63.2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47.1	46.7	47.7	47.6	49.0	46.7	46.7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4.5	105.4	109.0	108.7	104.3	99.1	102.0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8	109.4	106.7	105.2	105.3	104.5	103.5	103.0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0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물가 상승에도 금융완화 유지

- 10월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전월보다 확대되고,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 일본은행(BOJ)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도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을 유지하기로 결정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6	1.0	1.2	0.9	-0.7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1.8	-0.7	0.5	1.3
민간기계수주	6.0	5.5	2.6	-3.2	-1.8	-1.1	-0.5	1.4	0.7
소매판매	2.0	2.6	2.5	0.5	2.5	2.2	0.2	0.4	-1.7
소비자물가	-0.2	2.5	0.5	0.7	0.8	0.4	0.2	0.3	0.7
실업률(%)	2.8	2.6	2.6	2.6	2.7	2.7	2.7	2.6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185	-1,779	-942	-64	-943	65	-661
경기선행지수 ¹⁾	114.3	112.0	108.3	108.8	109.1	108.4	109.5	109.3	108.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1월 내수 확대·수출 증가, 中 인민은행 유동성·대출 확대 지원

- 11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고, 수출이 7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하락세.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266조원) 투입과 대출 확대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기준금리(LPR 1년 만기 3.45%)를 4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정책에는 다소 신중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4.5	6.3	4.9				
산업생산	9.3	3.4	3.2	4.5	4.2	4.5	4.5	4.6	6.6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5.1	3.8	3.1	3.2	3.1	2.9	2.9
소매판매	12.4	-0.8	7.1	11.4	4.2	4.6	5.5	7.6	10.1
소비자물가	0.9	2.0	1.3	0.1	-0.1	0.1	0.0	-0.2	-0.5
수출(달러화기준)	29.6	5.6	-1.9	-4.8	-9.9	-8.5	-6.8	-6.6	0.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0월 실물지표 약세,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2연속 동결

- 10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밑으로 하락.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4.5%)에서 동결(2연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온적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1	-1.4	-1.3	-1.3	-1.3	0.6	-1.0	-0.7
소매판매	5.1	0.9	-0.1	-0.1	-0.4	-0.1	-0.7	-0.1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6.2	5.0	5.3	5.2	4.3	2.9
무역수지(10억유로)	97.7	-340.8	-6.8	1.4	23.3	3.6	11.0	8.7	10.9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9.2	96.9	93.9	94.6	93.7	93.4	93.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전환 & 유가 변동성 지속

- 달러화는 12월중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와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및 금리 인하 기대감, 위험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연초 들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美 국채금리 상승 전환 등으로 강세 전환
- 유가는 12월중 산유국들의 감산 의구심과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홍해發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올 초에도 홍해 지역의 선박 운항 중단과 사우디 아람코社의 원유 가격 인하 등으로 높은 변동성이 지속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0월	
엔/달러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1.04	145.76	
달러/유로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39	1.0973	
미 국채 (10년만기)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33	3.88	4.03	
WTI유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7	71.4	
두바이유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5	78.0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 증가·투자 감소세

○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전월비 3.3%)를 보이고,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증가 전환(0.5%)

-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5.7%) 생산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12.8%)와 기계장비(8.0%) 등 생산이 상당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3.3%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0%)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0.1%)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4.3	2.6*	0.9* (0.3*)	0.9* (0.6*)	1.4*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4.6* (0.6*)	1.6* (-0.1*)	0.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5.9* (-5.0*)	4.7* (0.5*)	-4.2* (-2.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9* (1.3*)	1.7* (-0.8*)	3.8* (2.1*)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2 (0.7)	-0.5 (0.3)	0.8 (1.1)	1.2 (1.9)	2.7 (1.1)	0.8* (-1.8*)	2.5* (0.5*)
광공업생산지수	8.2	1.4	-9.7 (-0.9)	-7.6 (3.1)	-2.0 (1.9)	-0.8 (5.2)	3.0 (1.8)	0.9* (-3.8*)	5.3* (3.3*)
제조업생산지수	8.4	1.4	-10.0 (-0.9)	-7.8 (3.3)	-2.1 (1.8)	-0.8 (5.3)	3.0 (1.9)	0.9* (-3.8*)	5.3* (3.3*)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6.4 (1.2)	2.3 (-0.3)	1.9 (0.7)	1.6 (0.2)	2.1 (0.5)	0.8* (-0.9*)	1.9* (-0.1*)
소매판매액지수	5.8	-0.3	-0.4 (1.1)	-0.2 (-0.3)	-2.8 (-2.6)	-4.7 (-0.3)	-2.0 (0.1)	-4.5* (-0.8*)	-0.3* (1.0*)
설비투자지수	9.6	3.3	-0.5 (-8.8)	-1.2 (1.3)	-10.6 (-3.5)	-14.6 (4.1)	-5.6 (8.7)	-9.9* (-3.6*)	-11.9* (-2.6*)
건설기성(불변)	-6.7	2.7	11.5 (4.6)	8.9 (-0.8)	10.5 (1.0)	10.0 (2.5)	11.3 (0.2)	3.5* (0.0*)	1.4* (-4.1*)
동행종합지수(2020=100)	103.7	108.2	108.8	110.2	110.0*	110.0	110.0*	110.1*	110.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4	100.9	99.7	100.2	99.4*	99.4	99.2*	99.0*	98.9*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2	108.7	109.4	109.9	111.5*	111.4	111.9*	112.4*	112.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	100.3	99.0	98.7	99.3*	99.3	99.4*	99.7*	99.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2.6%) 판매 증가세가 확대되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도 증가한 데다, 신발·가죽 등 준내구재(전월비 -0.4%) 판매가 소폭 감소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 전환(-0.8% → 1.0%)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1.5%)와 운송장비(-5.7%)가 전월에 이어 동반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2.6%)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건축(-3.0%)과 토목(-7.3%) 공사 실적의 부진 여파로 5개월 만에 감소 전환(-4.1%)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수입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0.4%)

□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보합(0%), 전년동월비 +3.2%

- 1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8%)에서 상당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료품·비주류음료(0.6%)와 음식·숙박(0.4%),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3.3% → 3.2%)
- 1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하락세(전월비 -5.5% → -2.7%)가 이어진 데다, 공산품 가격도 하락(0.0% → -0.7%)하고, 서비스 가격 역시 전월 수준(0.0%)에 그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전월비 -0.4%, 전년동월비 0.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5.1	3.6	3.3 (0.6)	3.1 (1.0)	3.4 (0.7)	2.4 (0.1)	3.4 (0.9)	3.7 (0.5)	3.8 (0.4)	3.3 (-0.5)	3.2 (0.0)
근원물가	4.1	4.0	4.3 (0.9)	3.7 (0.5)	3.3 (0.6)	3.8 (0.0)	3.7 (0.2)	3.7 (0.2)	3.5 (0.4)	3.2 (-0.1)	3.1 (0.2)
생산자물가	8.4	-	0.6 (-0.3)	0.7 (0.7)	-	-0.3 (0.3)	1.0 (0.9)	1.4 (0.5)	0.7 (-0.1)	0.6* (-0.4*)	-
근원물가	6.4	-	0.3 (0.1)	0.3 (0.1)	-	-0.4 (0.0)	0.5 (0.5)	0.8 (0.2)	0.7 (0.1)	0.6* (-0.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2월 기업대출 감소 전환 및 가계대출 둔화

-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계절요인에 기인하여 전월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기준 역시 감소 전환
(2023년 11월 +7.3조원 → 12월 -5.9조원, 대기업 -2.0조원, 중소기업 -3.9조원)
 - 대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상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운전자금 중심으로 전월비 감소 전환
 - 중소기업 대출 역시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들의 연말 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상당폭 감소
- 회사채는 일부 기업들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11월 -0.9조원 → 12월 +0.3조원)
- CP·단기사채는 연말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규모가 확대
(2023년 11월 -2.1조원 → 12월 -4.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
(2023년 11월 +3.4조원 → 12월 +0.6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원화대출	89.2	-2.9	104.8	-9.4	77.4	8.1	7.3	-5.9	1,247.7
(대 기 업)	7.1	-1.9	37.6	-6.1	31.9	4.3	1.5	-2.0	247.8
(중소기업)	82.1	-1.0	67.2	-3.3	45.5	3.8	5.8	-3.9	999.9
〈개인사업자〉	37.0	1.1	19.7	-0.8	7.5	0.5	0.9	-1.0	450.2
■회사채 순발행	16.2	-0.8	-5.9	0.6	-0.9	-2.3	-0.9	0.3	..
■CP 순발행	4.1	-3.0	23.5	1.5	-1.0	2.5	-2.1	-4.6	55.5
■주식발행	28.9	0.6	21.7	0.6	11.0	0.6	3.4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2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약간 줄어들고,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11월 +5.4조원 → 12월 +3.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1월 +5.7조원 → 12월 +5.2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감소 규모가 확대
(2023년 11월 -0.4조원 → 12월 -2.0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71.8	-0.2	-2.6	0.3	37.0	6.7	5.4	3.1	1,095.0
■주택담보대출	56.9	2.0	20.0	3.1	51.6	5.7	5.7	5.2	850.4
■기타대출	14.7	-2.2	-22.9	-2.9	-14.5	1.0	-0.4	-2.0	243.3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월 초순(1월 2일 ~ 10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 전환

- 국고채(3년) 금리는 12월중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외인의 국채선물 매수, 국내외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올 들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따른 美 국채금리 상승세 등으로 동반 상승
(1월 2일 3.240% → 1월 10일 3.269%, +0.03%p)
-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과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연초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치 약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북한의 해상 사격,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1월 2일 1,300.4원 → 1월 10일 1,320.1원, +19.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2024
	4/4	2/4	3/4	4/4	1/4	2/4	3/4	12월	1.10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3.15	3.27
회사채(3년, 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3.90	4.02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3	3.79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2	4.28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88.0	1,320.1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912.7	908.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5.3%, 전월비 +3.3%

- 제조업생산이 기계장비(-13.8%)와 전자부품(-9.9%), 섬유제품(-2.2),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42.4%)를 비롯해 1차금속(11.2%), 기타 운송장비(6.0%)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5.3%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5.9%)와 중공업(6.8%)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된 반면, 경공업(-3.0%)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3.3%)와 1차금속(-5.7%), 전자부품(-3.8%)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12.8%), 기계장비(8.0%), 화학제품(2.8%), 섬유제품(2.1%), 기타운송장비(1.5%)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3.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8)는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6% 상승(2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4.3%로 전월 대비 8.9%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1월중 재고 증가폭(8.9% → 3.1%,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축소된 반면, 출하가 전월과 달리 증가 전환(-1.6% → 6.2%)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비스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1%

-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5%), 숙박·음식점(-3.3%)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5.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4.0%), 전문·과학·기술서비스(3.6%), 정보통신(0.6%)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1.9% 증가
 - 전월비로는 도소매(1.0%)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0.1%) 등에서 증가하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5%)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운수·창고(-1.4%), 숙박·음식점(-0.4%) 등에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0.1%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1.8%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99.5	104.6	106.2	109.0	106.7	11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9.7	-7.6	-2.0	3.0	0.9	5.3	3.3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98.8	105.2	106.5	109.7	107.4	112.8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0.0	-7.8	-2.1	3.0	0.9	5.3	3.3
섬 유	113.4	2.0	-3.5	-7.8	-9.1	-6.9	-4.6	-5.2	-2.2	2.1
화 학	854.2	8.6	-9.9	-20.4	-16.1	-3.1	0.9	-0.4	2.9	2.8
철 강	496.6	5.2	-8.5	-6.5	-2.6	3.4	21.1	26.4	17.5	-6.6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23.6	13.1	42.4	12.8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2	8.4	7.6	-26.6	-28.2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18.4	-22.5	-5.4	14.8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4.3	-13.9	-14.6	-14.2	-12.3	-14.9	-1.8
기계, 장비	737.3	12.1	1.1	0.7	-6.5	-12.7	-9.4	-13.5	-13.8	8.0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0.1	2.5	-2.0	-3.3
조 선	66.0	-7.2	20.7	19.6	4.6	9.3	9.7	-4.1	-8.0	1.0
- 중 공 업	-	9.9	1.5	-10.7	-7.7	-1.5	4.1	1.9	6.8	3.7
- 경 공 업	-	1.3	0.4	-5.6	-8.3	-5.8	-3.2	-4.1	-3.0	1.4
-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2.3	6.7	25.9	9.3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0	112.0	111.8	115.2	114.6	115.6	114.4	115.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6.4	2.3	1.9	2.1	0.8	1.9	-0.1
도소매	193.9	4.3	2.7	2.8	-1.1	-1.9	-0.3	-3.6	-1.5	1.0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3	9.5	8.7	10.3	6.2	5.0	-1.4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16.3	-2.7	-4.7	-1.2	-5.3	-3.3	-0.4
정보통신	88.9	12.2	1.7	-1.7	-3.8	-1.8	-3.9	-0.9	0.6	0.0
금융및보험	167.4	8.0	8.4	10.7	7.1	4.7	1.7	1.5	3.8	-0.7
부동산	38.7	2.3	8.0	4.1	3.0	2.3	1.6	-1.3	-1.0	-0.4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1.8	2.6	2.5	2.7	2.7	3.6	0.1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5.6	3.5	3.4	3.9	3.2	4.0	-0.5
교 육	73.5	1.5	1.2	1.1	0.2	1.3	1.8	1.2	2.1	0.4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7	3.5	5.1	5.7	5.6	4.2	0.7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0.8	7.0	-2.0	4.5	1.4	5.6	-3.1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13.8	5.4	5.5	3.2	4.8	6.1	-2.0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0.6	-1.6	-0.9	-1.0	-2.3	-2.1	0.4
- ICT서비스업	-	6.2	5.5	2.2	0.8	1.7	0.5	-0.3	1.1	1.8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0.1% → -2.0%)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소폭 확대(1.3% → 1.4%)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2년 5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1.5% → 3.4%)를 보이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0.3% →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3.0% → 3.5%)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1% → 3.0%), 정보통신업(5.4% → 8.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6.8% → 3.5%)에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9% → -1.0%)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하락(1.2% → 0.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 업	28,089	28,416	28,693	28,687	28,518	28,678	28,698	28,764	28,698	28,093
전년동기비	3.0	1.2	1.2	0.9	1.1	0.9	1.1	1.2	1.0	1.0
농림·어업	4.6	-0.8	-0.3	-1.3	-0.3	-1.1	-0.2	1.0	-0.1	-2.0
제 조 업	3.1	-0.9	-1.1	-1.3	-0.6	-1.5	-1.6	-1.7	-0.3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8	1.5	1.5	1.6	1.7	1.8	1.3	1.4
건 설 업	1.6	-0.4	-2.4	-0.1	1.8	0.0	1.7	0.6	1.5	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1.8	1.0	0.6	0.9	0.9	1.1	0.3	0.3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1.3	1.2	3.4	1.0	2.0	3.6	3.1	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2.8	2.2	1.3	2.4	2.0	1.8	1.2	0.8
실 업 륜 (계절조정, %)	2.9	2.7	2.6	2.6	2.9	2.4	2.6	2.5	2.8	3.3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2월 수출 5.1% 증가, 수입 10.8% 감소, 무역수지 45억 달러 흑자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77억 달러, 수입이 10.8% 감소한 532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주요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인도·아세안·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2023년 4분기중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상당폭 감소(-17.6%)하고, 非에너지 수입도 8.2%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 감소율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8.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도 1.7%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4.7% 감소한 약 7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출	6,836 (6.1)	6,327 (-7.4)	1,558 (-12.0)	1,572 (-9.7)	1,685 (5.9)	520 (-8.1)	547 (-4.4)	550 (5.0)	558 (7.7)	577 (5.1)
수 입	7,314 (18.9)	6,427 (-12.1)	1,593 (-13.2)	1,507 (-21.6)	1,586 (-10.7)	510 (-22.8)	510 (-16.5)	534 (-9.7)	520 (-11.6)	532 (-10.8)
무역수지	-478	-100	-35	65	98	10	37	16	38	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2023년 12월 및 4/4분기, 연간 수치는 잠정치 기준.

□ ICT(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와 장비(자동차·선박·기계) 중심 수출 증가

○ 반도체 : IT기기(PC·모바일·서버)의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회복세 속에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2022년 3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자동차** :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도 고부가가치 차량(친환경차·SUV) 판매의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2022년 6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주요국(미국·EU)들의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른 내연차 부품 수요 감소와 현지공장 증설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지난 2021년 이후에 수주 받은 선박 물량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중심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T제품 및 자동차 등 신시장 분야의 OLED 탑재 확대, 스마트폰 패널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견조한 수요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고부가가치 부품이 탑재된 고가형 모델 판매 비중의 확대와 과 전년동기에 발생한 폭스콘 파업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감소 전환
- **철강** : 판재류 등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업황 회복세에도 주요 수출시장(중국)의 철강 수요 정체기와 단가 약세 지속 등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연말 프로모션 등으로 아세안 소싱처의 신규 오더가 소폭 증가함에도 여타 신흥국(중동·중남미)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재차 감소
- **석유제품** :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미국 등지로의 항공유 수출 증가에도 최근 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의 하락 지속에도 신규 설비 증설과 유류설비 재가동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일부 수출시장(중국·EU)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한 영향에도, 미국·중남미 등지의 생산 및 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지속과 전략시장 수출 확대 및

공작기계류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AI 등 혁신기술 탑재 제품 출시로 인한 국내산 대형가전 제품의 경쟁 우위 지속과 미국 등 주요 시장 내 친환경 정책에 따른 고효율 제품 중심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낸드 공급업체들의 감산 영향에 따른 SSD 가격의 회복에도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서버 투자 위축 등으로 수출이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동차	16.4	31.1	48.9	17.1	19.7	28.7	9.4	19.7	21.5	17.9
자동차부품	2.4	-1.5	1.0	0.4	-3.7	5.9	-3.5	-3.8	3.8	-10.8
선박류	-20.9	20.9	21.7	-4.0	60.5	35.1	14.4	101.8	38.4	47.2
일반기계	2.0	4.6	5.6	6.7	8.7	7.6	9.9	10.4	14.0	2.2
철강	5.7	-8.4	-5.7	-5.5	-5.7	-11.3	7.3	-0.8	-11.1	-4.7
석유화학	-1.4	-15.9	-24.3	-13.8	2.0	-11.4	-5.0	-3.4	5.8	3.9
석유제품	64.9	-17.0	-34.8	-27.4	2.6	-32.6	-6.4	16.7	-4.5	-3.5
섬유	-4.0	-11.2	-11.2	-11.8	-6.1	-10.9	-8.5	-9.0	0.9	-9.9
가전	-7.4	-1.0	-7.5	7.1	7.5	11.7	7.8	5.7	14.1	2.9
무선통신기기	-10.4	-10.2	-20.8	-8.4	0.5	-8.6	-3.6	-4.5	8.4	-2.7
컴퓨터	-4.7	-53.3	-61.6	-48.1	-31.7	-54.7	-53.9	-30.6	-29.4	-34.5
반도체	1.0	-23.7	-34.8	-22.6	10.4	-20.6	-13.6	-3.1	12.9	21.8
디스플레이	-1.1	-12.1	-16.5	1.2	10.8	4.1	4.0	15.5	5.9	1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2023년 12월 및 4/4분기, 연간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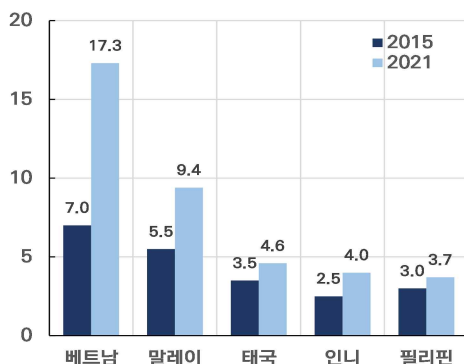
한국은행(2023년 12월)

- 지난 2023년에 크게 둔화된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2024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칠 전망
- 그 동안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기조, 중국의 글로벌 생산 거점 역할 축소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세가 팬데믹과 전쟁 등 여파로 가속

□ 최근 교역환경 변화의 주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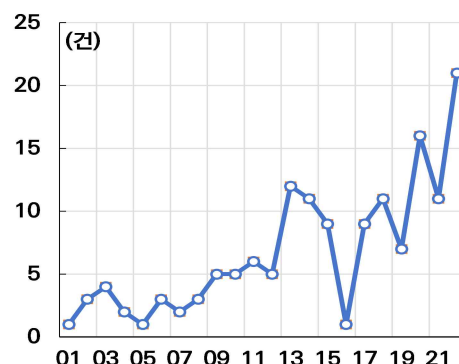
- 보호무역 이슈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확산
 - 팬데믹과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무역규제가 증가
 - 주요국들의 기후위기 대응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점차 확대 추세
- 미·중 갈등 여파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 활동에 있어 경제적 요인 외 지정학 요인이 함께 고려되면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
 - 미국의 경우 지나 2020년 이후 중국向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자국 시장과 인접한 북미 지역 국가들로의 투자가 증가
 - 이처럼 투자와 교역의 분절화 속에서 여타 국가를 경유한 간접수출이 늘어나는 등 글로벌 교역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국면
-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이 둔화
 - 중국의 성장세 둔화 속에 中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생산 자립도 제고로도모하는 전략으로 인해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파급 영향이 줄어들 전망
-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증대**도 기업들의 수출·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 글로벌 분절화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산업·통상정책의 향방은 불확실성 요인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중 美 귀착 비중〉



자료 : ADB, 한국은행 조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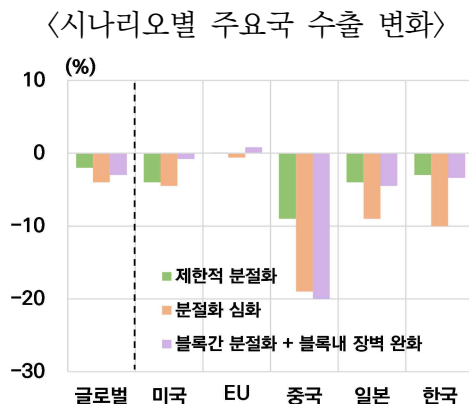
〈안보 관련 WTO 무역제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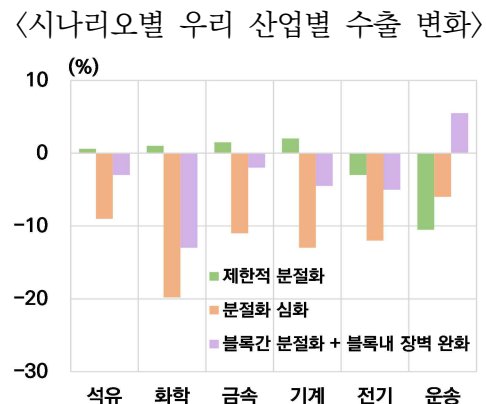
자료 : WTO Trade Concerns Database.
주 : 23.10월 조회 기준(검색어 "Security").

□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잠재적 영향 분석

-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 우리 수출은 글로벌 교역 분절화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지만, 수출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기대
- 최근의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며, 단순한 단절화라기보다는 복잡다단하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
- 향후 글로벌 교역 분절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제한적 분절화)** 미·중·EU 등 주요국이 전기전자(반도체 등)와 운송장비(자동차 등) 등 첨단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거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은 해당 산업 중심으로 3% 내외 감소, 글로벌 수출은 2% 감소
 - **(분절화 심화)** 주요국들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 강화·블록내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 수출은 최대 10%,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각각 감소하고, 특히 화학·기계·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
 - **(블록간 분절화 심화, 블록내 무역장벽 완화)**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블록내 장벽이 완화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약 3% 중반 감소에 그치면서 블록내 국가간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다변화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



자료 : 한국은행 조사국 추정.
주 : 시나리오별 2022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조사국 추정.
주 : 각 시나리오별 2022년 대비 증감률.

□ 결론 및 시사점

- 최근의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교역환경 하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기술제휴 확대 등을 통해서 기술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는 한편, 통상협력 강화 및 무역장벽 완화 등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5일)	(1.16일)	(1.17일)	(1.18일)	(1.19일)
 11월 산업생산  11월 수출입통계	 11월 소매판매(수)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2월 고정투자  23.4분기 실질GDP  12월 소비자물가(수)  12월 산업생산  12월 소매판매	 11월 기계수주  11월 산업생산(수)	 12월 소비자물가
(1.22일)	(1.23일)	(1.24일)	(1.25일)	(1.26일)
 BOJ 통화정책회의	 12월 생산자물가	 12월 무역수지(잠)  12월 경기선행지수  1월 소비자동향조사	 ECB 통화정책회의  12월 내구재수주(잠)  23.4분기 실질GDP (예비치)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1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12월 개인소비
(1.29일)	(1.30일)	(1.31일)	(2.1일)	(2.2일)
	 12월 실업률  12월 무역수지(수)  1월 경제체감지수  23.4분기 실질GDP (예비치)  연준 FOMC(~1.31일)	 12월 산업생산(잠)  12월 소매판매(잠)  1월 소비자신뢰지수  12월 산업활동동향	 1월 소비자물가(예)  12월 실업률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수출입통계	 1월 고용보고서  1월 소비자물가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12월 소매판매  1월 ISM 서비스업지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2월 무역수지	 1월 소비자물가	